

지역신보도 고신용자 쏠림...중·저신용 보증 급감

전남 보증 비중 45.3%→27.8%...전국 5번째 감소폭
광주 43.4%→29.5% 하락...취약계층 특례 공급 축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고신용자에게 집중되면서 전남광주 지역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도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 신규보증 비중이 4년 사이 크게 줄어든 데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특례보증 공급도 축소되면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신규보증 비중은 2022년 45.3%에서 2026년 27.8%로 17.5%p 하락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도 같은 기간 43.4%에서 29.5%로 13.9%p 떨어졌다.

2022년 전남과 광주 모두 신규보증 금액의 40% 이상을 중·저신용자가 차지했지만, 올해는 두 지역 모두 30%를 밑돌았다. 특히 전남의 감소 폭은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가운데 다섯 번째로 컸다. 지역신보의 보증 구조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지역신보 신규보증 금액 중 고신용자 비중은 2022년 60.8%에서 2026년 1~8월 76.4%로 15.6%p 상승했다. 반면 중·저신용자 비중은 39.2%에서 23.6%로 하락했다. 이 비중은 2023년 32.4%, 2024

년 28.0%, 2025년 27.0%로 해마다 낮아졌다. 보증잔액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전국 중·저신용자의 보증잔액은 2022년 말 18조7103억원에서 올해 8월 14조9096억원으로 3조8007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신용자 보증잔액은 27조7744억원에서 30조8868억원으로 3조1124억원 증가했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보증상품 공급도 줄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급액은 2022년 8162억원이었지만, 사업 종료 후 2023년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대체됐다. 공급액은 2023년 6820억원에서 2024년 3273억원

으로 감소했고, 같은 해 5월 종료됐다. 이후 2025년 5월 햇살론 플러스, 같은 해 7월 소상공인 비즈니스카드보증 도입됐지만 두 사업의 공급액은 지난해 총 1621억원에 그쳤다. 2022년 특례보증 공급액보다 약 80% 줄어든 규모다. 올해 1~8월 공급액도 1241억원에 머물렀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용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중·저신용자 보증 비중이 낮아지면서 정책금융이 자금 지원이 절실한 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6월 발표한 지속가능한 보

증지원체계 구축방안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재보증비율을 50~60%로 유지해 포용금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보증 지원만으로 실제 보증 공급과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임문영 의원은 “지역신보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금조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지원이 절실한 중·저신용자 몫이 계속 줄어드는 만큼 고신용자 쏠림의 원인을 분석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실제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아이폰 폴더블폰 사전예약...통신사 혜택 경쟁

중고폰 보상·제휴카드 할인·구독권 등 다양화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통신 3사가 사전예약 고객을 겨냥한 혜택 경쟁에 나섰다. 중고폰 보상과 제휴카드 할인부터 인공지능(AI)·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권, 단말 교체 지원까지 혜택을 다양화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 는 모습이다.

18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과 T월드 매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통 고객에게 구글 AI 플러스 2개월과 티빙 광고형 스탠다드 6개월 구독권을 제공한다.

중고폰 반납 보상과 제휴카드 할인을 함께 활용하면 최대 221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이음권과 외식·배달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레트로 디자인 케이스 등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KT는 AI와 OTT, 스마트기기 등을 조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선보이고 단말 관리와 교체 지원을 강화한다.

단말 분실·도난·파손을 보장하는 서비스와 2년 뒤 기기 반납 시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휴카드 할인과 캐시백을 합치면 조건에 따라 최대 약 144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개통 6개월 차부터 기존 단말을 반납하고 새 아이폰으로 교체할 수 있는 조기반납형 ‘70% 보상패스’를 출시했다. 조건에 따라 구매 당시 출고가의 최대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최대 30만원의 단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중고폰 반납 시 추가 보상도 지원한다.

통신 3사가 구매 할인뿐 아니라 구독 서비스와 기기 교체 프로그램까지 내놓으면서 소비자 선택지도 넓어지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최대 혜택 금액만 비교하기보다는 가입 요금제와 카드 이용 실적, 중고폰 반납 조건, 월 이용료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보상 프로그램은 이용 기간과 단말 상태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장기적인 통신비와 기기 구매 비용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



신혼부부 혼수, 광주신세계에서 마련해요. 광주신세계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겨냥해 혼수용품을 선보이며 관련 수요 공략에 나서고 있다. 직원들이 신혼부부들이 혼수로 준비하기 좋은 빌레로이엔로흐 그릇을 선보이고 있다.

전남광주 수출기업, AI로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

무역협회, 시장·고객 분석·홍보 콘텐츠 제작 등 실무 교육

한국무역협회 전남광주지역본부가 지 수출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과 해외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마무리했다.

한국무역협회 전남광주지역본부는 최근 광주무역회관에서 지역 수출기업 40여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광주AI무역아카데미’ 올해 마지막 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해외마케팅을 주제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조사부터 홍보 콘텐츠 제작, 마케팅 성과 분석까지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기업의 수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날에는 글로벌 마케팅 동향과 검색·사회관계망서비스(SNS)·광고채널 활용 전략을 살펴보고, AI와 캔바를 활용한 제

품 홍보용 샷폼 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실습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AI 기반 해외시장·고객 분석과 타겟 설정, 홈페이지와 온라인몰의 검색 노출 개선, 방문·문의·구매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성과 분석 등을 다뤘다.

전남광주지역본부는 올해 무역실무 교육 1회와 AI 업무 활용 교육 4회 등 총 5회의 광주AI무역아카데미를 운영했다. 교육마다 40개사 안팎의 기업이 참여했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

K-푸드 수출 애로 해결 클릭 한 번으로 ‘원스톱’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부터 해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이하 K-푸드 지원 허브) 온라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A-B-C-D-E)’의 B전략(원스톱 애로 해소)과, 지난 9월 발표한 ‘하반기 K-푸드·수출 성과 창출을 위한 BOOST 전략’의 기업 현장 맞춤형 판셋 지원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aT를 간사기관으로 지정해 K-푸드 지원 허브를 출범시키고, aT 온라인 게시판과 대표번호(1566-1472)로 수출 애로 상담 창구를 일원화했다.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상담은 총 637건으로, 관세·통관, 위생·검역, 물류, 해외인증, 지식재산권 등 11개 분야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의 분쟁 상황에 대응해 운송·물류, 외환 분야 전문가를 보강, 하역 항구 변경과 우회 운송 등 긴급 애로에 대응해 왔다. 최근 상담 수요가 늘고 애로 유형도 복잡해짐에 따라, 상담 접수부터 처리·평가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단순 정보는 농식품 수출정보 사이트(KATT)의 AI 서비스 ‘ChaTi(체티)’가 24시간 즉시 답변한다.

조환천 기자 poose007@gwangnam.co.kr

아카데미홀 대관

-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